

2016년 7월

화학경제연구원
컨설팅팀

발간일: 2016년7월
분량: 23페이지
가격: 22만원

(02)6124-6660
consulting@chemlocus.com

화학경제연구원

Phone: +822 6124-6660
Fax: +822 6124-6669
consulting@chemlocus.com

포트폴리오 다각화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

수량기준 국내 기능성 Tape 시장(의료용 제외)은 2015년 약 3100만m²에서 2020년 약 6000만m²으로 연평균 1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기차와 2차전지 시장의 확대에서 비롯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기업은 각 용도별 시장에 특화

기능성 Tape를 제조하는 국내기업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특정 용도에만 특화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Nitto Denko, 3M 등 외국계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사업의 리스크를 낮추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 역시 특정 제품에만 사업을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제품 개발로 외형을 키울 것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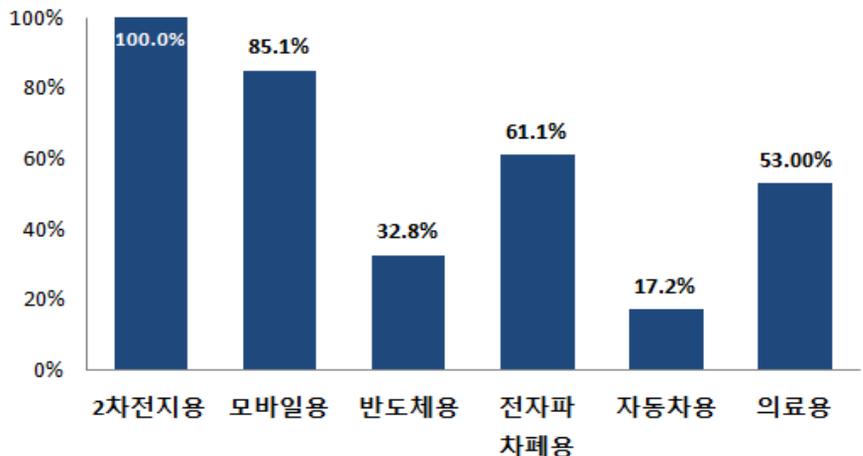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로 성장의 한계 넘어야!

‘영우’, ‘ANYONE’, ‘NDFOS’는 모바일용 Tape에, ‘AMC’, ‘이녹스’, ‘KCC’ 등은 반도체용에 특화되어 있으며 ‘두성산업’, ‘솔루에타’, ‘아진일렉트론’, ‘가드넥’ 등은 전자파 차폐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용 Tape는 ‘3M’, ‘한남하이텍’ 등이 공급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용도에 따라 공급기업이 달라지나 한 용도에만 주력하는 전략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Tapex’, ‘대현에스티’, ‘영우’, ‘린텍코리아’, ‘이녹스’, ‘가드넥’, ‘솔루에타’, ‘3M’ 등 8개사의 제품 포트폴리오, 재무정보, 기술개발동향을 살펴보고 사업다각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능성 TAPE 용도별 국산화율(2015)



Source) CMRI